



기본에 충실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자!!

- (주)경인양행 -

가을이 시작되어가는 9월의 오후, 태풍 나비는 파란색 도화지에 한가로이 노니는 양떼 그림을 그리고 떠난 듯 하늘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투명하고 아름답다. 푸른 하늘을 배경삼아 취재사진을 찍으면 멋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며 무재해 4배 달성을 앞두고 있는 경인양행에서 어떠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화공단으로 향했다.

좀 더! 좀 더! 좀 더!

시화공단 내에 위치한 경인양행은 1971년 설립, 고품질의 환경 친화적인 반응성, 분산, 형광, 산성, 직접염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염료 정밀 화학 업계의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주)경인양행의 2005년 경영지표로 「좀 더! 좀 더! 좀 더!」가 선정되었는데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근로자, 사용자가 손을 맞잡고 안전보건우선, 품질안정, 환경



개선에 좀더! 좀더! 좀더! 노력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 3가지 목표 중에 안전보건을 가장 우선으로 정하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업체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료나 부하직원의 마음을 읽자! (Mind Reading)

경인양행만의 독특한 안전보건 활동으로 Mind Reading 프로그램이 있다. 사람마다 매일 신체 리듬이 틀리고 개인적인 건강상태가 다르다. 이는 산업재해 사례 원인 중 설비에러에 따른 것보다 휴면에러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듯이 그날의 작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마인드 리딩(Mind Reading)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작업자 개인의 건강상태(Conditon)를 작업자 자신이 가슴에 리본(노란색 리본 : 건강이상, 파란색리본 : 피로누적, 붉은색 리본 : 스트레스 누적)을 스스로 부착함으로써 주변 동료 및 상사에게 무언으로 알려 함께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활동이다. 이로인해 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휴면에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동료나 상사가 가슴에 달린 리본 색깔로 해당 근로자

의 건강상태를 알고, 작업자 상태에 따라 작업을 재배치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Zero화 하는 근원적 사고 예방활동이다.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선도한다

경인양행은 회사 자율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운용하고 있다. 평소 안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던 김윤희대리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하여 무재해 경인양행 시화공장의 맨 앞에 세웠다. 김윤희대리는 “처음에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공장장 이하 전 직원이 나의 지시에 따라 안전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말한다. 아침작업 시작 전 전 직원이 모여 경쾌한 음악에 맞춰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를 실시하고, 체조가 끝난 후 안전구호 제창을 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웹을 통한 아차사고(Near Miss)관리

경인양행의 아차사고는 무재해 경인양행의 길이되고, 지팡이가 되고 있다. 어느 하나의 아차사고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근로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안전 요소를 뿌리채 뽑는다. 아차사고로부터 제안된 불안정한 설비를 개선하고 사고예방에 노력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아차사고 사례는 웹을 통해 공개되어 다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천과 안산에 위치한 타 공장의 경인양행 근로자들도 동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인양행은 과거 동종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동종 및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분석활동, 설비 및 구축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에 대한 운영기준 및 책임과 권한을 명문화하는 OSH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 강조의 날 설정운영, 무재해운동 선포 등 안전을 위해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끊임 없는 도전은 경인양행 시화공장의 무재해 4배를 넘어 10배, 15배를 달성하고 나아가 동종 업계의 모범사례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